

“AI 활용 저널리즘... ‘기사 작성 구조화’가 핵심”

■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강은진 고려대 연구교수, AI 글쓰기 전략 제시 “기사 가치 판단·현장 맥락은 결국 기자의 영역”

“AI를 사용할지 말지를 고민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저널리즘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강은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지난 8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1층 대강당에서 ‘저널리즘을 위한 AI 글쓰기-AI를 활용한 글쓰기 전 반과 실제’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본 개념부터 실제 기사 작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방법까지 폭넓게 짚었다.

특히 AI를 단순히 글을 대신 써주는 도구로 볼 것이 아니라, 취재와 기사 작성 전 과정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교수는 “AI는 단지 글을 대신 써주는 도구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안에서 활용해야 할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AI에게 무엇을 시킬지, 어디까지 맡길지를 기사 스스로 설계하는 능

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AI를 컴퓨터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전 반으로 설명하며, 생성형 AI와 대형언어 모델(LLM)의 개념을 소개했다.

이어 ChatGPT와 Claude, Gemini, Perplexity 등 주요 AI 도구의 특성과 차이점을 비교해 기사 작성과 자료 분석, 번역, 제목 작성, 팩트 확인 등 저널리즘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 교수는 “LLM은 가장 확률 높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라며 “반복적이고 패턴화된 작업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뉴스 가치 판단이나 현장 취재의 맥락, 인간 관계 기반의 취재는 여전히 기자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 글쓰기 연구 동향과 국내외 언론사의 사례도 공유했다.

그는 요약과 헤드라인 생성, 기사 초안 작성 보조 등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로이터 등 해외 언론사들이 AI를 활용 동향을 소개하면서 국내에서는 연합뉴스와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이



강은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지난 8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1층 대강당에서 ‘저널리즘을 위한 AI 글쓰기-AI를 활용한 글쓰기 전 반과 실제’라는 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기사 초안 작성과 교열, 보도자료 제구성 등에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강에서는 기사 작성 9단계 워크플로우를 중심으로 AI 활용 방법도 제시됐다.

이이팀 발굴과 사전 조사, 취재 계획,

기사 구성, 초고 작성, 검토 및 수정 등 단계별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냈다.

강 교수는 “글쓰기를 막연한 재능이나 영감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면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기사 작성 과정을 정의하고 세분화해야 비로소 AI가 생

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I에게 자신의 기사 스타일과 문체를 학습시키는 방법, 클라우드 코워크(Cowork)를 활용한 파일 정리 및 자동화, 이메일-캘린더 연동을 통한 일정 관리 등 실무 활용 팁도 안내했다.

강 교수는 “AI 활용은 완성된 매뉴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며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AI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안정적 전력수급 주도

취임 후 첫 일정 중부본부 방문 국가전력망 특별현장 안전점검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며 안정적 전력수급 체계 구축을 주도했다.

전력거래소는 김성진 신임 이사장이 최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중부본부를 방문해 신규 사업장 개소를 앞두고 특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부본부는 안정적인 전력계통 및 전력 시장 운영을 위한 상시 예비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등 국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 중인 시설이다.

지난 2017년 충남 천안 중부지사가 수해 피해를 입은 이후 국가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중관체계(Dual-Primary)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전력거래소는 신규 중부본부 구축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전력계통 운영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김성진 전력거래소 신임 이사장이 최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중부본부를 방문해 신규 사업장 개소를 앞두고 특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력수급과 전력시장 운영은 국가 산업 전반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한 체계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김성진 이사장의 ‘현장 중심 안전경영’ 기초를 보여주는 첫 행보다. 김 이사장은 현장에서 신규 사업장 개소 전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

에 발굴·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부본부와 유관 부서의 철저한 안전관리 추진을 주문했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중부본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시설이자 필수시설”이라며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남 홈플러스 매장 2곳 휴업 들어간다

2차 구조혁신 착수...순천 풍덕점 이어 목포점 포함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매각계약 체결에 이어 점포 운영 효율화를 위한 2차 구조혁신에 착수한 가운데 전남지역 2곳의 매장에 대해 휴업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익스프레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NS소프팅과 매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대형마트·온라인·본사 등 잔존사업부문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2차 구조혁신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익스프레스 매각만으로는 회생절차 가결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잔존사업부문 정상화 재원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점포 운영 효율화와 추가 유동성 확보를 병행해 회생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오는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제한된 상품 물량을 핵심 매장에 우선 공급해 고객 선택권을 확보하고, 주요 점포의 매출 하락과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총 6곳(광주 2곳·전남 4곳)의 홈플러스 매장 중 전남 순천 풍덕점, 목포점 2곳이 포함됐다.

다만, 순천 풍덕점의 경우 당초 올해 운영종료가 계획됐고, 목포점의 경우 이번 2차 구조혁신을 위해 추가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영입이 중단되는 점포 직원들에게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

는 휴업수당이 지급된다.

또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영업을 지속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영업 중단은 대형마트 부문에 국한되며, 해당 점포 내 물은 계속 영업 예정으로 임점 사업자들은 계속 영업 가능하다.

홈플러스는 이번 영업중단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요 거래처들이 납품조건을 강화하면서 전 매장에 충분한 상품을 공급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당수 홈플러스 매장에서 상품 부족으로 고객 이탈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출도 전년 대비 50% 넘게 감소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공급 가능한 상품을 67개 매장에 집중 배치해 주요 매장의 매출 하락 및 고객 이탈을 방지해 영업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0140@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건설링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